

묵묵히 유럽무대 안착 황인범 두번째 시즌 확실한 주전 다져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7경기 선발...2골 폭발 홈구장에 황인범 유니폼 진열...팬들 환호도 UEFA랭킹 8위 리그...더 큰 무대 발판 기대

황인범(25·루빈 카잔)이 유럽무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시즌에 주전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황인범

황인범은 14일(한국 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러시아 프리미어리그(RPL) 7라운드 우랄 예카테린부르크와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의 4-0 승리에 기여했다. 중앙미드필더로 나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 카잔은 4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추가해 4위(4승2무1패·승점 14)로 올라섰다.

황인범은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묵묵히 유럽 무대에 자리 잡았다. 손흥민(29·토트넘), 황의조(29·보르도), 황희찬(25·울버햄턴), 이강인(20·마요르카)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보다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팀에서 착실하게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시즌 리그 7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2골을 뽑아냈다.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지만,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러시아무대에 진출한 2020~2021시즌부터 황인범은 주전으로 기용됐다. 시즌 중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반기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3차 예선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새 시즌 들어 황인범의 존재감은 더욱 묵직해졌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2라운드 아르세날블라자전에서 골까지 뽑아내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카잔 감독은 "황인범은 팀의 척추와 같은 선수다. 그가 없으면 팀플레이에 제한이 생긴다"며 칭찬했다.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 대단하다. 황인범은 카잔 팬들이 뽑은 '7·8월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홈구장 카잔 아레나에는 그의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벤쿠버 화이트캡스(캐나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진열해놓는 열렬 팬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최근의 활약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주요 리그에서도 황인범을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최상위리그와 차이가 있지만, RPL은 2020~2021시즌 기준 UEFA 랭킹 8위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무대다. 현영민(은퇴), 오범석(포항 스틸러스), 김인성(서울이랜드) 등 과거 러시아무대를 경험했던 선배들과 달리 황인범은 카잔에서 활약을 발판으로 더 큰 무대를 노릴 수 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손흥민 빠른 회복세...20일 첼시전 출격 전망

9월 A매치 기간 오른 종아리 근육을 다친 손흥민(토트넘)이 20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첼시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홈경기에 맞춰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풋볼 런던, 이브닝스탠더드 등 영국 매체들은 14일 "토트넘 부상 리스트에 오른 손흥민과 에릭 다이어, 스티븐 베르흐바인 등이 첼시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대표팀 소집 해제 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부상 여파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 결장했지만, 빠른 회복세로 조기 합류를 바라보고 있다.



손흥민

손흥민은 14일 "토트넘 부상 리스트에 오른 손흥민과 에릭 다이어, 스티븐 베르흐바인 등이 첼시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대표팀 소집 해제 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부상 여파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 결장했지만, 빠른 회복세로 조기 합류를 바라보고 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서울 안익수 감독으로 본 '시즌 중 감독 교체' 득과 실

'시즌 중 취임≠성적 보장'...안 감독이 낄까?

3년간 시즌 중 교체 감독 총 18명 첫 경기 4명만 승...성적 영향 미미 30년간 교체한 팀 분석한 논문도 '시즌 중 부임, 부정적 영향' 결론 안 감독, 성공 사례 보여줄 지 관심

구분	시즌	감독(대행/구단)	첫 경기 날짜	상대	결과	승	무	패
K리그1	2019	임종용/인천	4.21	서울	무	0	2	2
		김기동/포항	4.26	수원	승	14	7	9
		최윤겸/제주	5.4	경남	승	5	8	16
	2020	유상철/인천	5.19	대구	패	6	10	11
		임종용/인천	7.4	울산	패	0	3	2
		주승민/수원	7.19	성남	패	2	1	5
		김호영/서울	8.1	성남	승	4	3	2
		조성환/인천	8.9	성남	패	7	1	5
		박건하/수원	9.13	서울	패	4	2	2
		박혁순/서울	9.26	수원	패	1	1	3
K리그2	2021	이기형/부산	10.4	서울	승	1	1	2
		안익수/서울	9.12	성남	무	0	1	0
		박철/대전	5.25	수원FC	패	0	1	4
	2020	우성용/서울E	5.25	안양	패	4	5	15
		이홍실/대전	7.8	안양	패	5	7	7
		전경준/전남	8.3	광주	무	7	5	3
		강철/대전	9.13	제주	패	0	0	1
		조만국/대전	9.19	서울E	패	3	1	5

9개월 넘게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K리그에서 시즌 도중 감독 교체는 운명처럼 다가온다. 대부분 성적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성적이 최우선인 프로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파리 목숨'에 비유되는 감독 자리가 가장 애잔해지는 순간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2부를 통틀어 최근 3년간 시즌 중 감독에 오른 K리그 지도자(감독 및 감독대행)는 모두 18명이다. 2019시즌 8명(1부 4명·2부 4명), 2020시즌 9명(1부 7명·2부 2명), 그리고 올 시즌 1명(1부)이다.

승강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감독 교체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대개는 기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 교체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이뤄지는 사령탑 교체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보장은 없다. 올 시즌에는 서울이 유일하게 감독 교체를 결정했고, 안익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1-1로 비긴 12일 성남 원정을 지휘하고 있는 안 감독. 성남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감독을 경질한 뒤 대행으로 몇 경기 치르다가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수순이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대표적이다. 2019시즌 초반 5연패에 빠진 은 안데르센 감독을

경질하고 임종용 수석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임 대행이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유상철 감독을 후임으로 결정했다. 전경준의 이유로 유 감독이 사임한 이듬해에도 임안

섭 감독 사임과 임종용 대행, 그리고 조성환 감독 부임이 되풀이됐다.

2019시즌 포항 스틸러스는 조금 달랐다. 최순호 감독이 시즌 초반 물러나자 김기동 수석코치를 곧바로 감독으로 승격시켰다.

새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 단박에 성적이 오를까.

최근 3년간 시즌 중 취임한 사령탑의 첫 경기 승률은 30.6%(4승3무11패)에 머물렀다. 분위기는 바뀔 수 있었지만, 성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해당 시즌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새 감독의 승률은 42.7%(63승59무94패)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몇몇 감독을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

학계 논문에서도 시즌 중 감독 교체로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팀의 감독 교체가 팀 경기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필수·김대권, 2015)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K리그 19개 팀과 96명의 감독을 경영학의 조직학습이론을 적용해 분석했는데, 감독교체는 팀 경기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감독을 교체하더라도 시즌 중이 아니라 시즌 후가 긍정적이었다는 결론도 함께 내놓았다.

올 시즌 FC서울이 처음으로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 구단은 강등 위기까지 내몰리자 박진섭 감독 대신 안익수 선문대 감독에게 벤치를 맡겼다. 능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2010년 우승 당시 수석코치를 맡은 인연까지 여러모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 판단했을 것이다. 안 감독은 데뷔전이던 29라운드 성남FC와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무승의 늪은 7경기(2무5패)로 늘어났고, 탈 꼴찌에 실패했다. 이제 안 감독의 운명이 걸린 날은 경기수는 10경기다.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뻔히 읽히는 물리치 플레이...성남 '예전된 팀 득점 꼴찌'

1명에게만 쏠린 단조로운 공격 한달간 침묵에도 해답 못 찾아 부쉬마저 기대이하...강등 위기

성남FC의 빈곤한 득점력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성남은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10위(6승10무12패·승점 28)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팀 득점은 K리그1(1부) 12개 팀 가운데 가장 적은 23골에 불과하다. 203cm의 큰 키와 폭발적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 물리치가 올 시즌 10골을 뽑아내며 득점랭킹 상위권에 올라있지만, 이제 성남의 공격은 뻔히 읽힌다. 그를 대신해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



성남FC 물리치

12일 벌어진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홈경기에서도 성남의 공격은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 감독까지 교체할 정도로 서울의 상황이 절박하긴 했지만, 수비수들이 줄 부상을 당한 만큼 충분히 공격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발 출전한 물리치는 솟을 하나도 못 때린 채 후반 20분 벤치로 물러났다. 물리치는 지난 달 14일 수원 삼성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낸 뒤 줄곧 침묵 중이다. 서울과 1-1로 비긴 뒤 김남일 성남 감독은 "이런 경기력이라면 앞으로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물리치의 선발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물리치만 탓할 순 없다. 그간 물리치가 성남을 위해 해준 게 많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공격전술을 구사하는 김

감독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선수 1명에게 편중된 공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공격수 부쉬의 활약도 아쉽다. 정규 라운드가 5경기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팀에 적은 중이다. 구단이 적응을 돕기 위해 부쉬 가족의 한국 입국까지 추진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전에서 서둘러 퇴장 후반기 24분 박수일의 동점골을 이끌어낸 장면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성남은 K리그1 잔류를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를 포함해 10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강등을 피하려면 빈공을 해결할 묘수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7년만에 8강 노리는 포항, 세레소 GK 김진현을 뚫어라

오늘 오후6시 오사카서 ACL 16강전 국대출신 상대 수문장 넘어야할 벽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가 7년만의 아시아클럽대항전 8강을 꿈꾼다.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15일 오후 6시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세레소 오사카(일본)와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전을 펼친다. 2014년 대회에서 8강에 올랐던 포항은 'K

리그 전통 명가'의 자존심을 걸고 클럽 한일전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다.

김 감독은 14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과거 포항은 ACL 단골손님이었으나 최근 5년간 출전하지 못했다. 모처럼 나선 이 대회에서 16강까지 올랐는데, 우리의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물론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올 시즌 J리그에서 9승9무10패로 12위에 머물고 지난달 레비 쿨피 전 감독

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난 뒤 고기쿠 아키오 신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ACL 조별리그(J조)를 4승2무(13득점·2실점), 1위로 통과했다. 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조직력이 탄탄해졌고, 콤팩트한 플레이로 빠른 역습을 전개한다는 평가다. 포항도 특정 선수가 아닌 팀 조직에 무게를 실은 만큼 비슷한 패턴의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포항이 꼭 넘어야 할 벽이 있다. 한구국가대표 출신인 상대 수문장 김진현이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포항 벤치의 지시,

선수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수시로 세레소 오사카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진현은 "K리그에서 경쟁력을 발휘한 포항전의 부담이 적지 않지만 오직 팀만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BG파워 유나이티드(태국)와 8강행을 다룬 전북 현대는 태국국가대표 풀백 사살락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식 전북 감독이 일찌감치 선발 기용을 예고한 가운데 사살락은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최상의 퍼포먼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